“세계일화 정신 회복으로 위기 극복하자”

2월 6일 불교리더스포럼 · 종단협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 봉행

대통령 내외 최초로 신년법회 참석
열암곡 부처님에 헌등하며 시작해

진우스님 “세계가 한 송이의 꽃”
윤 대통령 “불교는 따뜻한 등불”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리더스포럼은 2월 6일 서울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주요 내외빈이 화합 떡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기획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교계와 사회 각계각층의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위기 극복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을 서원했다.

불교계 30개 종단 협의단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이하 종단협)와 불교리더스포럼(상임대표 이기흥)은 2월 6일 서울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를 봉행했다. 코로나19 등으로 5년만에 열린 이날 법회에는 특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부대중은 물론 현직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동참, 국태민안을 서원하고 한국불교 중흥의 상징이 될 열암곡 부처님 바로세우기 발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법회는 금강경 독송에 이어 국운융성과 국태민안 발원이 담긴 헌등으로 시작됐다. 진우 스님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열암곡 부처님 전에 등공양을 올리며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서원했다. 이어 동참자들은 부처님께 3배 신년하례를 올린 후 서로가 서로에게 대중하례를 나누며 새해 안녕을 서원했다.

진우 스님은 신년법어에서 세계일화(世界一花) 정신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지구촌 전쟁과 기후위기는 모두가 한 이웃이라는 지구공동체 정신을 망각한 결과”라면서 “세계 전체가 한 송이 꽃이라는 세계일화 정신의 회복만이 그 해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남산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와 한국불교 명상의 세계화라는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우리 민족의 얼을 되살리게 될 것이며 국민 평안과 국운 융창의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과거 천년을 일으켜 세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새로운 천년을 중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명상 세계화에 대해서도 “세계 속에서 유구한 우리의 민족정신과 전통문화의 자긍심을 현시대 현대인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실천행인 K-명상을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선구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두 가지 불사에 우리 정부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들이 일심으로 원력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먼저 호국불교와 동체대비 가르침을 언급하며 불교계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나라 안팎으로 많은 도전과 위기들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과 불교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늘 기도하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 사회의 따뜻한 등불이 돼준 불교계에 깊이 감사하다. 불교계가 국난을 함께 극복해 왔던 호국불교의 정신,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이 법어에서 언급한 세계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일화 정신은 보편적 가치를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면서 “정부도 사회적 약자와 우리 사회의 아픔을 더 세심하게 보듬고 따뜻한 온기가 국민의 삶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법회를 공동주최한 종단협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과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는 신년인사로 법회 봉행 의미를 전했다.

무원 스님은 ‘소통과 화해’를 통한 회통(會通) 정신을 강조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해 나가고 있듯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새로운 희망을 맞이하자”고 말했다.

이기흥 상임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움츠렸던 모든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불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면서 “상생과 화합을 통해 경쟁으로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지수를 낮추고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이 땅에 더 많은 이들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해 인류의 희망이 되게 해달라”면서 “변화무쌍한 세상사의 본질을 밝히고 여러 대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발원했다.

각계각층에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신년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한국불교의 단단한 뿌리 역할을 하고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해결과 국민 통합정신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법회는 불법승을 외치며 6.4m에 달하는 ‘화합 떡케이크’ 커팅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종단협의회 30개 종단 대표, 조계종 부실장 스님,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 주요 소임자 스님과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구태서 현대불교신문사 대표 등 언론사 관계자, 주호영 정각회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포교 및 신도단체 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비구니회, 2023년 샤카디타·회장 선출 만전

2월 9일, 운영위원회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가 올해 첫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 한 해 추진사업을 공개했다.

전국비구니회는 2월 9일 매따 공연장에서 제3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재무 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2023년 사업 계획에 따르면 전국비구니회는 △4월 수행결사회향 △6월 샤카디타 세계대회 △9월 제13대 회장 선출 등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시작하지 못한 국제 사미니강원을 다른 각도에서 검토, 비구니 출가자 감소를 국제적인 수행과 교육으로 메꾸어 갈 방안을 찾는 것을 금년 과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12대 집행부 활동백서와 역대 비구니회지 통합 발간도 추진한다.

회장 본각 스님은 “제12대 전국비구니회가 4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잘 마감되도록 철저히 살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캄보디아 발전 염원”

진우 스님, 주한 대사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월 8일 서울한국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캄보디아 대사의 예방을 받고 “캄보디아와 한국은 불교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나라”라면서 “캄보디아가 발전을 거듭해 앙코르와트를 세웠던 제국의 위상을 다시 찾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에게 먼저 불교국가로서 전통 계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앙코르와트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고 스케일과 정교함에 놀라움을 표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이에 대해 자부심을 표하며 “캄보디아는 전통성과 종교성, 문화성을 세계인들과 나누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의 과학기술과 디지털 발전을 롤모델로 참고 중”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 제42대 이사장에 돈관 스님 선출

제348회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동국발전이 불교발전’ 화두로 학교 발전에 매진할 것” 밝혀



학교법인 동국대 제42대 이사장에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2월 7일 교내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제348회 이사회를 열고 2월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성우 스님의 후임 이사장으로 돈관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돈관 스님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차기 이사장 돈관 스님은 1978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9년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14 · 17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대구불교방송 사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천연기념물 분과), 학교법인 동곡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한 돈관 스님은 현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장,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신임 이사장 돈관 스님은 “학교를 발전시키라는 소명이라 생각하고 모든 교직원 여러분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하겠다”면서 “고문 자승 스님이 내보이신 화두인 ‘동국발전이 곧 불교발전’을 마음에 새기고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차기 의료원장으로 채석래 현 의료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채 의료원장은 장기적인 의료사업을 위한 적임자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채 의료원장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병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후보 의현 스님 선출

2월 7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후보로 의현 스님이 추천됐다.

팔공총림 동화사는 2월 7일 경내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방장 후보에 의현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총원 280명 가운데 200명이 참석했다.

선출 직후 의현 스님은 “사명대사 교육관을 건립하고 총림 승려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팔공총림 방장 후보로 추천된 의현 스님은 중앙종회 추대 절차를 거쳐 방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의현 스님은 1952년 합천 해인사에서 상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제7대 중앙종회 의장, 총무원 총무부장, 조계사 주지, 은해사 주지, 동화사 주지, 능인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후보로 추천된 의현 스님이 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배철완 대구지사장



buddhanara 붓다나라

붓다나라 열린불교대학 대중강연

불교로 대중과 소통하다

- 첫 번째: 깨달음에 대한 담론

발제강의(각 30분):

정영근 학장: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중표 대표: 붓다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양형진 교수: 현대물리학에서 본 연기법
질의응답 및 토론 (1시간 30분)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조계사 내)

일시: 2월 26일(일) 오후 2시~5시

주최: 붓다나라 열린불교대학

홈페이지: buddhanara.or.kr

email: hello@buddhanara.or.kr

전화: 010-6374-6396

카카오 채널: 붓다나라

유튜브: 붓다나라TV

참가신청: 붓다나라 홈페이지
(선착순 300명, 무료참가)

카메라나 QR코드 스캔 어플로 옆에 QR코드를 보면
해당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